

# ‘전일빌딩 245’ 명칭 어떻게 생각하나요

헬기 탄흔 추가 발견 변경 논란  
기념제단 “5·18 의미 축소 우려”  
탄흔 숫자로 규정 성급 지적  
광주시는 이름 그대로 개관 준비



호남언론의 태 자리이자 5·18의 상징인 전일빌딩이 오는 4월3일 개관을 앞두고 빌딩 명칭 논란에 휩싸였다. 광주시는 빌딩 명칭을 ‘전일빌딩 245’로 정했으나 시민들은 기존 명칭인 ‘전일빌딩’을 희망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전일빌딩 245’로 할 것이냐. 바꿀 것이냐. 광주시가 헬기 탄흔이 추가로 발견된 전일빌딩(광주일보 옛 사옥)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전일빌딩 245’로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견이 분분하다. <광주일보 2월 21일자 6면>

특히 5·18 기념제단 등을 중심으로 “5·18에 대한 상징성을 축소·해석할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하면서 향후 경과가 주목된다.

광주시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탄흔 추가 발견과 관련, 탄흔 숫자가 다르더라도 기존 ‘전일빌딩 245’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관식을 준비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이름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면서 245는 헬기 사격의 끝이 아닌 사격 탄흔의 발견이 된 시점으로 ‘스토리텔링’하면서 의미를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관식(4월 3일)이 얼마 남지 않아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명칭을 정하는 게 여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광주시 안팎에서는 2억원을 들여 전일빌딩 옥상 2곳과 외벽 등에 ‘전일빌딩 245’라는 간판을 이미 달았고 관련 안내문·홍보책자 등을 배포한 만큼 수정하기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지만 5·18 기념제단 등을 중심으로 제

기되는 반대 의견도 새겨들을 만하다. 당장, 245라는 숫자가 5·18에 대한 의미를 의도치 않게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40년전인 1980년 5월 21일 전일빌딩 앞에서 계엄군이 시민에게 집단 발포해 60여 명이 다치거나 숨졌고, 5월 27일 새벽에는 계엄군이 시민군 진압작전을 벌인 장소를 광주 스스로 단순 숫자에 담아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18사적지(제28호)를 고작 헬기 사격 탄흔 갯수로 규정해 버린다는 것이다. 둘째, 당시 헬기(500MD)에 장착된 기

관총은 1분당 500~600발이 발사된다. 고속일 경우에는 900발까지 발사할 수 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결국, 245라는 숫자가 자칫 30초도 안되는 사격을 했다는 왜곡·축소된 사실을 만든다는 게 5월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실제로 사격은 훨씬 더 많이 이뤄졌을텐데 왜 굳이 숫자를 못박아 의미를 축소하려 하는 거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현재 진행중인 전두환씨 재판 및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으로 전일빌딩에 대한 추가

조사가 예상되는 만큼 탄흔 숫자를 고정하는 건 성급하다는 지적도 거세다. 마지막으로 2억원을 들여 관련 안내문과 설명자료, 홍보책자, 간판 등을 제작했다 해도 진상규명과 전국화·세계화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온다면 수정하는 게 당연하다는 게 5월 단체의 시각이다. 한편, 국과수는 전일빌딩에서 기존 245개의 탄흔 외에 추가로 25개의 탄흔이 발견됐다는 감정을 지난 19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5	달뜨기	09:33
해질	18:26	달집	22:34

우산 챙기세요  
서해부터 비 시작 돼 전지역으로 확대되겠다.

광주	가끔흐리고비	5/8	보성	가끔흐리고비	2/7
목포	가끔흐리고비	5/8	순천	가끔흐리고비	4/9
여수	가끔흐리고비	6/9	영광	가끔흐리고비	4/8
나주	가끔흐리고비	4/8	진도	가끔흐리고비	5/9
완도	가끔흐리고비	6/9	전주	가끔흐리고비	5/7
구례	가끔흐리고비	3/7	군산	가끔흐리고비	5/8
강진	가끔흐리고비	4/9	남원	가끔흐리고비	2/6
해남	가끔흐리고비	5/9	흑산도	가끔흐리고비	7/10
장성	가끔흐리고비	4/9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안바다	동~남동 0.5~1.0	동~남동	0.5~1.0
	면바다(북)	동~남동 0.5~1.5	동~남동	1.0~2.0
	면바다(남)	동~남동 0.5~1.5	동~남동	1.0~2.0
남해서부	안바다	동~남동 0.5~1.0	동~남동	0.5~1.0
	면바다(대)	동~남동 1.0~2.0	동~남동	0.5~2.5
	면바다(동)	동~남동 0.5~1.5	동~남동	1.0~2.0

◇ 생활지수

보통	감기	보통	뇌졸중	보통
미세먼지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0:01	22:20	04:48	17:00
여수	05:25	17:47	11:42	--:--

◇ 주간 날씨

29(토)	3/1(일)	2(월)	3(화)	4(수)	5(목)	6(금)
☀	☀	☀	☀	☀	☀	☀
5/16	5/16	4/12	0/13	2/8	0/9	-1/11

## 5·18 40주년 기념행사 엠블럼·슬로건 확정

나눔 공동체·세계화 의미 담아

40주년을 맞는 5·18민중항쟁기념행사의 엠블럼(사진)과 슬로건이 최종 확정됐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이하 5·18 행사위)는 올해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 엠블럼으로 ‘오월 주먹밥’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엠블럼은 원형 이미지로 1980년 5월 항쟁 당시 광주공동체가 실천했던 나눔의 가치를 상징하는 ‘주먹밥’과 5·18의 세계화를 의미하는 ‘떠오르는 태양’을 형상화했다. 숫자 518을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의미화하고 항쟁 정신과 나눔공동체, 민주주의의 세계화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5·18 행사위는 5·18 슬로건으로



‘기억하라 오월정신! 꽃피어라 대동세상!’을 선정했지만 엠블럼은 26편을 접수받고도 마땅한 당선작을 내지 못해 전문업체에 제작의뢰를 맡겼다. 5·18행사위는 최종 확정된 슬로건과 엠블럼을 제40주년 5·18 기념행사의 공식 홍보물과 기념품 제작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5·18진상규명조사위 조사관 합격자 19명 발표

5급 7명·6급 5명·7급 4명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조사위)의 실무 책임직 별정직 조사관 합격자 19명이 발표됐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27일 조사관 34명 중 19명의 합격자를 발표하고,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채용공고를 다시 내기로 했다. 이번 합격한 5·18진상조사위 조사관 19명은 대외협력담당관과, 조사 2과장, 조사 3과장을 비롯해 5급 상당의 조사관 7명, 6급 조사관 5명, 7급 조사관 4명 등이다. 실제 조사를 담당하는 37개의 조사과는 5·18 당시 발표 명령과 역사 왜곡, 민간인 학살과 암매장, 헬기사격 등과 관련한 진상규명 조사 등 실질적 조사 업무를 분담

해 담당하게 된다. 나머지 재모집 인원의 채용절차는 ▲채용공고(2월 27일~3월9일) ▲원서접수(3월 5일~9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3월 16일) ▲면접전형(3월 23일~24일) ▲최종합격자 발표(4월 1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중철 5·18진상조사위 부위원장은 “합격자 이외의 직무에 관해서는 응시자중 적합한 인원이 없어 재공고를 실시 했다”면서 “원래 예정된 28일보다 하루 일찍 합격자결과를 발표하고 재공고를 냈다며, 많은 관심과 응모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관 채용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34명 모집에 163명이 지원해 평균 4.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시·전남도 개학연기 기간 결식아동 긴급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결식아동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이들을 위한 긴급지원에 나선다. 지자체로부터 급식 지원을 받는 만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18세 이상도 포함) 아동은 2019년 기준 광주가 1만 4923명, 전남이 1만 8502명으로 3만 3000여명에 이른다. 연중 급식을 지원 받는 아동만도 400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결식아동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각 지자체가 점심 식사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늦춰지면서 결식아동이 지원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지자체들은 개학연기 기간을 방학으로 보고 결식아동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광주시의 경우 올해 시행된 지원을 기준으로 긴급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도도 일단 확보된 올해 예산으로 방학 때와 마찬가지로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추후 추경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기로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전남교육청 시·군교육청 학교지원센터 구축 완료

전남교육청이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 일선 시·군 교육청 학교지원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학교지원센터는 학교 폭력 예방과 처리, 기간제 교사 채용,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교육공무직 인건비 지급 등 교직원들이 맡았던 업무를 하게 된다. 도교육청 학교지원센터는 ▲도시형 4곳(목포, 여수, 순천, 광양) ▲도농복합형 4곳(나주, 무안, 화순, 영암) ▲농촌형 7곳(고흥, 해남, 담양, 보성, 영광, 장성, 완도) ▲도서벽지형 7곳(곡성, 진도, 구례, 장흥, 강진, 함평, 신안) 등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